

‘산책, 건축과 미술’ 전에서 본 열린 예술의 가능성

한 필 원 | ATA 대표,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작년 가을, 대전의 원도심 한복판에서 6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대전지방보훈청 별관(등록문화재 100호)’의 철문이 활짝 열리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곳에서 건축과 미술의 만남을 표방하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대전시립미술관과 ATA(아시아건축연구실)가 주최한 ‘산책, 건축과 미술’ 전(이하 ‘산책전’)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참여한 필자가 쓰는 자기평가서이다.

‘도심의 밤거리에서 번쩍이는 것은 모두 자본의 탐욕을 감추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밝은 밤거리를 싫어하는 필자가 그 밤거리에서 일을 하나 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이다. 반년 동안에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인 ‘대전지방보훈청 별관’과 ‘구 산업은행’의 모든 것을샅샅이 조사해 도면과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빠듯한 용역비에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았다.

아무튼 그 일로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은행동네거리, 대홍동성당 건너편에 밤낮으로 진출하여 대전 지방보훈청 별관 건물을 당당하게 점유하곤 하였다. 이른바 ‘공무수행’이다. 그런데 공무란 심심한 것, 재미가 없다.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여러 모양의 루버(햇볕가리개)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이 근대건축물은 일을 맡은 우리와 루버를 타고 오르는 등나무에게만 의미있어 보였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 왜 이 건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이렇게 반세기 동안 한 자리에 서있는데... 그나저나 ‘이 건물을 어찌 할 것인가?’ 시민들의 추억이 배인 건축물이 경제논리에 따라 방치되거나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현실.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의협심이 발동하였다.

시민들이 근대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뜻을 모아 옛 도심을 정감어린 곳으로 가꾸어나가는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없을까. 결국 전시를 생각해냈다. 눈에 잘 띠는 곳에 입지한 이 건물은 전시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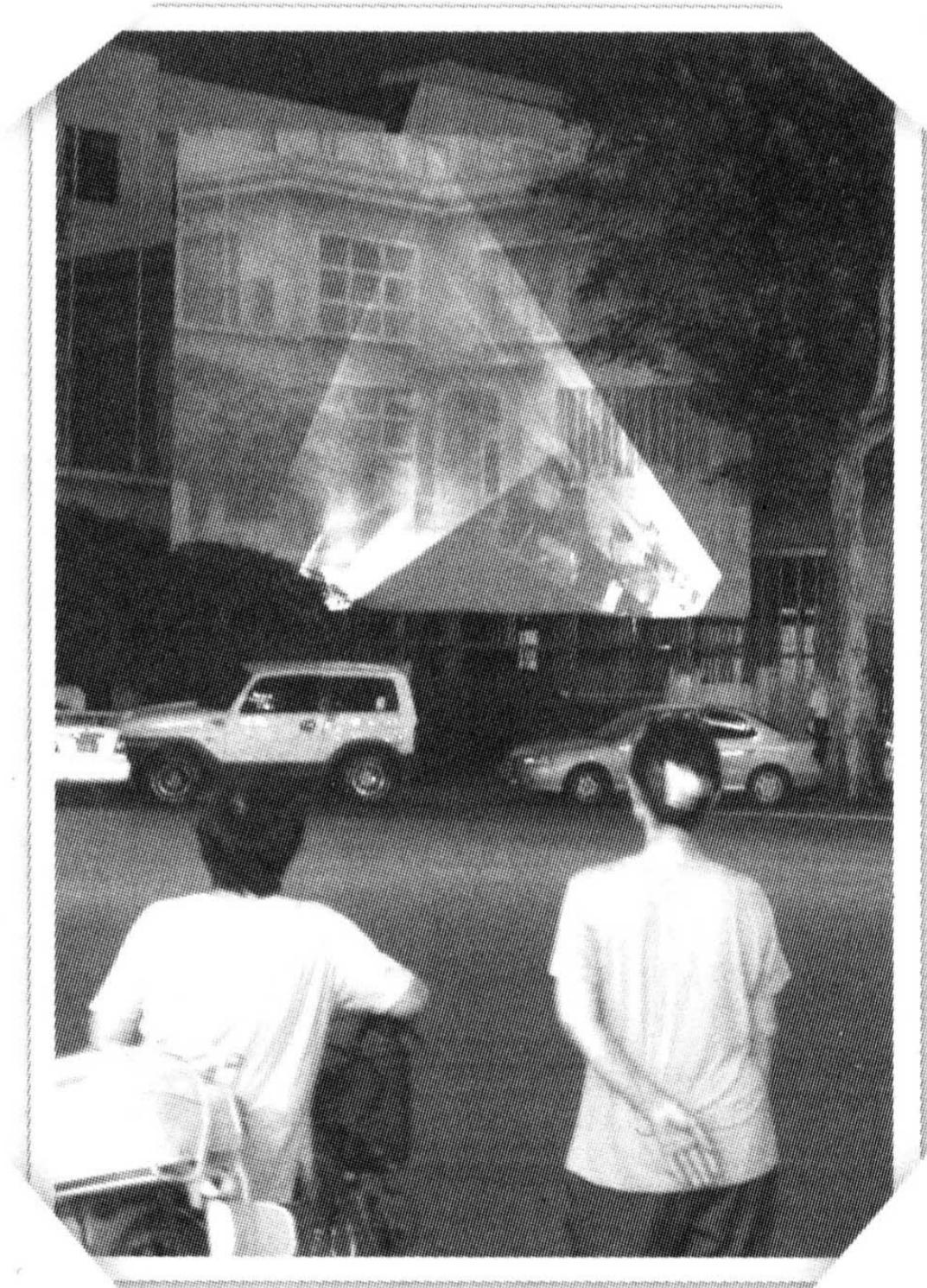
로서도 안성맞춤이라고 여겨졌다. 문화재청의 일을 하기만도 벅찬데 사서 고생을 하기로 한 것이다.

마침 비슷한 계획이 있던 대전시립미술관과 같이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실에 돌아와 계산해보니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생겼다. 이 문제는 대우건설,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뜻있는 기업이 해결해주었다. 전시장의 관리도 문제였다. 이 문제는 학생과 주부 등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주었다. 이렇게 이 전시는 작가는 물론이고, 건물의 주인인 국가기관, 주최자인 시립미술관과 대학연구실, 그리고 후원자인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열리게 되었다.

산책전의 의도는 근대문화유산 건물을 이용해 영상쇼와 전시를 하여 도시와 건축, 미술의 만남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전시 준비부터 건축과 미술은 결합되었다. 2층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간 대형 스크린(폭 9.2×높이 11.5m)이 태풍에도 끄떡없었던 것은 그 덕이다. 어떤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과학적인 구조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스크린에는 사진을 실사출력 하여 건물의 입면을 재현하였다. 건물의 입면을 큰 스크린에 담은 것 자체가 ‘그것은 재현 또는 유지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스크린의 이미지 뒤에는 실재가 있다. 실재와 이미지의 중첩, 일견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크린의 이미지는 실재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뚜렷이 보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근시안을 가진 사람에게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밤이 되면 이 스크린에는 두 대의 빔프로젝터가 비디오 영상을 비추었다. 유동조의 ‘사이에서’라는 영상설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상에서 소재를 취해 물과 불이라는 본원적 요소를 표현였다.

스크린 아래의 빨갛고 파란 문짝들은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진, 판화, 설치 등의 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시공간이 작품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권종환의 ‘뿌리깊게 인식된 장소의 기억’을 보며 “정말 이랬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는 어두컴컴한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조개탄 때는 난로 곁으로 가고 있었다. 만일 이 작품이 철없이 깔끔한 전시벽에 갇혔으면 어땠을까?



사이에서(사진 전재홍)

그밖에도 전시의 취지에 공감한 몇몇 작가들이 건물과 어울리는 작품을 내주었다. 전재홍은 일제 시대 ‘소록도신사’의 아픔을 찍었고, 정장직은 주역의 원리를 담은 각양각색의 ‘얼굴’을 실크스크린 하였다. 빼걱 2층의 문을 열면 먼지가 가시지 않은 방에 이동석의 ‘열정’과 ‘불확실성’의 세계가 나타난다. 공단천을 애써 바느질한 따뜻하면서도 아린 작품이다. 이상봉은 그 건너 사무실에 ‘대홍동 성당’ 거리를 만들어놓았고, 유재중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산들바람’을 탄 철재가 허름한 건물의 내벽을 기어오르게 하였다.

이제 산책전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나, 그리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나 생각해 본다.

산책전은 도심에 있는 국가기관의 건물 전관을 임대하여 개최한, 아마도 전례 없는 전시회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시공간, 곧 일상의 현장이 좋은 전시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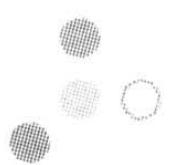
이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별개로 인식되어 온 건축과 미술이 만나 서로에게 기대는 새롭고 재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건축과 미술의 대화는 따스했다. 건축을 하는 필자나 미술을 하는 작가들이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동병상련을 갖게 되었다.

오랫동안 외면되었던 건물의 외벽에서 영상설치작업이 빛을 내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읊씨년 스럽던 건물을 메우는 이 전시는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문화계의 관심을 모으는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지역과 전국의 24개 매체에서 보도를 하였으니 꽤 주목을 받은 셈이다. 그것에는 무엇보다도 도심의 문화유산 건축물에서 개최된다는 점, 그것도 활기 잃은 원도심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근대 이후 대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원도심은 1988년부터 개발된 둔산지구가 새 도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원도심의 상인들이 상권의 위축을 피부로 느낀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 원도심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도심과 그 주민들이 문화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이다. 원도심에는 아기자기한 전시장과 공연장들이 있지만 주요한 전시나 공연은 대부분 신도심에 세워진 대형 전시장이나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렇게 원도심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전 원도심의 한 건물을 전시장으로 한 산책전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자평한다. 앞으로 이런 문화행사가 자주 열린다면 원도심이 잊었던 활기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시민들의 일상이 새겨져 추억이 된 장소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되살리는 해법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을 본다면 짚어볼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 중 하나로, 열린 공공예술의 가능성을 탐색한 이 전시가 미디어 아트를 염두에 두었더라면 더 풍부하고 재미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1990년대 이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매체예술, 미디어 아트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술의 존재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작가 중심의 예술에서 관객 중심의 예술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에서는 작가(작품)와 관객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매우 중요시된다.

산책전은 두 달 동안(2005년 9월 23일 ~ 11월 20일) 진행되었다. 전시장 관리에 연 인원 36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관객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기간 동안 건물, 작가, 그리고 도시민 사이에 암묵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산책전에서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상호작용성을 충분히 갖춘 작품을 선보이지 못함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산책전에서는 여전히 시각 중심의 매체를 사용하는데 머물러서 디지털 미디어의 큰 특성인 이른바 복합매체성(multimodality)을 선보이지는 못하였다. 물론 이런 한계가 애써 유치한 작품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열린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산책전, 이 전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시가 열린 대전지방보훈청 별관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 활용하자는 마음이 이심전심 모아졌는지, 대전시에서 이 건물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ATA에서도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전시 준비과정과 전시물을 웹(ata.han-nam.ac.kr)에서 재현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전시가 가상전시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을 활용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리노베이션 후의 모습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건물을 지금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일정한 리노베이션이 필요한데, 그 효과를 가상 현실이라는 멀티미디어 신기술로 미리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작업도 하나의 미디어아트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가상 현실을 통해 산책전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즉각적인 상호작용성’을 실현하려 애쓰고 있다. ■



뿌리깊게 인식된 장소의 기억 (사진 전재홍)